

2021년 2월 18일 부활절 새벽예배

약속대로 오늘은 2021년 2월 18일 부활절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쫓지만 여러분 다 읽었죠? 부활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행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 영도 살아 나오는 부활.

부활은 고전 15:21-22

죽었으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죽었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은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죽음이 왔어.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후아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죽었죠?

다시금 구약역사는 그 나름대로 4천년동안 큰 사망권 안에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펴왔습니다. 모세도 보내고, 아브라함도 보내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내서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상태를 해야 되요. 에덴동산의 역사.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후아담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러므로 후아담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고 따른 자는 부활되었어요. 구약 역사를 청산하고 죽은 상태에서 부활되는, 자녀권으로 부활된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된 거예요. 주를 믿어야 부활된다. 주는 오직 한 분인데, 그는 구원자예요. 자녀권의 부활이 되었어요. 주를 믿어야 부활된다는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순종해야 부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육이 부활된다고 했는데, 죽은 자도 부활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계는 영계 나름대로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영으로 부활되고 육신도 부활됩니다. 육신은 죽은 상태가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니 육신이 부활된 거예요.

성약역사는 신부로 부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믿고 따르고 순종하니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권에서 또 부활된 거예요. 기독교는 자녀권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아들로 부활된다고 했죠? 내 말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시대는 신부권의 권세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크게 보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해요. 어디에 고장났나 했을때는 고쳐야 부활되죠? 아까 전파가 안 통했죠? 죽었던 말이에요. 다시금 어디 고장났다 손대니 다시 부활된 거예요.

부활. 이와같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도 안통하고 살아나면 다시 통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강조를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오시면 육신이 부활된다고 하도 얘기해서 그것이 아니다.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을 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망권에서 생명으로 나왔죠? 사망에서 나오는 역사예요. 그것이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육신만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육신이 살아 있는 자는 부활의 혜택이 한명도 안되게? 육신이 죽은 자도 예수님이 몇 명 살렸죠? 불과 몇 명 살리면서 그것도 죽은지 몇일 되지 않은 자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오시면 육신이 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신약 역사에 와서 신약의 제도를 따르고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한 말을 기억하라. 나같은 자가 온다. 자기는 아주 구약 역사의 종의 세계의 지도자이잖아요. 아들 세계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나같은 자이지만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바로 자녀권의 왕이지.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믿고 따르게 해서 바로 부활역사가 되었죠? 그래서 육신도 사망에서 나와서 부활되었고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 이상세계 양과 염소가 하나되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부활. 예수님은 또 하나,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불신하고 배신하고, 그냥 놔두면 그 죄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사탄도 다 잡아가니.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한 몸으로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배신의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줬죠. 쇠뿔치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최고의 죄인으로 대한거예요. 유대종교. 그 시대 불신했어. 하나님 믿고 메시아 기다린 자들이 불신. 할수 없이 시대 십자가 쳐주고 다시금 예수님 부활했죠.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 사망권에서 따르는 자들과 운명이 같으니까 죽음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사망권에서 영도 나오게 되었고, 육신은 그대로 지불했어요. 예수님 육신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왔다.

영이 부활된 것은 2천년 동안 예수님 영이 계속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펴 나가고 있어요. 살았기 때문에. 행한대로 보여주잖아. 사망권에 있었으면 예수님 나올수가 없죠.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산속에서 가르치신거예요.육신은 못봤어요. 영이 육신처럼 싱싱하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어요. 육계에서 보면 하나의 영체의 모습이었어요. 이와같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육신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시 오는 부활도 못맞는다. 다시 오실때는, 정신과 사상 말씀 그리고 그 위에 심령, 사명으로 온다. 너무 모르고 믿고 있어요.

시대는 역사가 40년 넘게 했지만, 역시 동시성적 역사로 시대는 불신과 배신과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불신한 자들은 다시 말씀 듣고 믿고 따랐을 때 부활되었죠. 1978년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죠? 시대 말씀 선포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나도 나부터 제일먼저 부활된거예요. 새로운 역사시대로. 예수님도 그가 제일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한명씩 한명씩 예수님을믿고 따랐을 때 그들도 계속 부활되면서 따라왔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내가 먼저 부활되고, 선생이 먼저 부활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신부의 단계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이다, 불신이다 하면서 오히려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반대하니, 역사를 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세계적인 복음을 중단하며 시대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저서 구약에는 고난의 주로 온다고 했듯이, 신약에도 고난과 영광으로 말씀했죠? 계시록에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했죠? 1일은 1년.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시대 십자가를 각각 집니다. 환난도 어려움도 당하고. 4년, 7년, 10년, 어떤 사람은 21년.

나도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2018년 2월 18일 오늘까지 있다가 나온거예요. 자기 난대로 생일을 정하죠? 대통령 그 나라 산다고 대통령 생일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 10년 동안 시대 십자가를 지고, 오늘 아침에 지금으로부터 3년전 2월 18일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때도 새벽 4시였어요. 서류 절차 받으니까 오후쯤에 나왔죠? 이와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척척 맞습니다. 예수님은 3일반만에 나타났죠? 영으로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만져봐라. 그러다가 예수님은 40일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죠? 제자들이 그 사망가지고 그 후에 역사를 폈죠?

이와같이 3년 되는 해에 2월 18일. 그대로 행한대로 새벽에. 어떻게 하면 새벽에 나타날까. 원래는 2월 19일에 나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월 18일에 나온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맞추셨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후에 새벽에, 선생님도 안식일 이후에.

여러분들 와서 3일동안 말씀을 전해주고 여기 생가로 왔습니다. 육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처음에 본 사람들은 선생님 맞나? 했죠?

부활은 기쁘다 즐겁다 좋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동시성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성서의 만가지 십만가지 다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기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두가지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열가지 스무가지 백가지 다 맞아야 해요. 말씀도 맞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부활의 역사도 펴야 되고.

이 시대는 육신도 살고, 영도 살고, 두가지가 살아나서 가는 거예요. 한번 저 췌으면, 나와 예수님은 같은 주권권이니까. 먼저는 육으로 먼저 저주고, 이 시대는 심령으로 심정의 십자가를 저 췌었습니다. 시대따라 다르니까. 시대의 고난으로 환난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받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받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시대마다 달라요. 모세는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췌죠? 이 시대도 따랐던 자들이 불신하고 악평해서 100명씩 200명씩 나가버리고. 다시 듣고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역사를 편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적인 자들과, 외적인 자들도 같이 고통을 받으며 회개도 하고 그랬죠.

나간 자들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불신하고 이거 아니다하고 그랬죠. 여러분도 환난때 하나님 없다 이러죠? 그러나 해가 보이나 안보이나 해는 해예요. 그런 것들이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나를 믿던 자들도 믿지 않게 되고, 하도 환난을 받으니까 역사가 아니다 하면서 좌절되었죠?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전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어서 역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기성의 부활과 달라요. 새시대 천년역사를 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은 거예요. 10년 동안 내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왔죠. 육신이 안 죽었으니까 계속 말씀을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 말씀을 써서 주고 편지도 줘서 위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육신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활동을 못했죠. 활동하는 기능을 다시 했고, 부활의 해가 되었습니다. 살아난 힘을 가지고 불같은 말씀을 막 전했죠?

그러므로 다시한번 부활절을 맞아서 심령의 부활, 육신의 부활. 귀신을 쫓아내고 악마를 쫓아내고 바로 마비된 육신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도 빛을 발해서 영과 육신이 부활되는 모습을 보게 된거예요. 이 시대 따르는 자들만 맞는 거예요. 이제 천년 역사가 계속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 끝나도 세밀하게 알아야 해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부활됩니다. 따라야 부활됩니다. 동시성적 역사.

내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을때 10일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해서 내가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조사기간, 이런 기간이 환난 기간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했어요. 10달 조사받고 하루도 더 치지 않고 딱 열달. 그 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베드로가 막다가 사탄짓이라고 들었죠?

선생님도 중국에서 조사받고 한국으로 가려고 할 때 왜 가냐고 했어요.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10년을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옥에서 충성으로 기도하며 말씀주고, 10년뒤 2월 18일에 나와서 지난 3년동안 했습니다. 예수님 3일만에 부활했듯이, 이 시대는 3년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정없이 뜻을 펴 나가십니다. 성령도 행하시고. 사탄은 방해하나, 하나님은 쳐서라도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온 인류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나님께서 쳐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두 기도하라. 우리를 막는자를 기도하라.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시대를 따라 사명을 하도록 기도하라. 이러면서 자기 부활되도록 더 좋은 부활되도록, 더 열심히 뛰고 충성하도록 하라. 집중해서 생명을 구하고, 비활동자 죽어 있는자. 비활동자는 반은 죽고, 반은 살아 있는 자예요. 그들을 이끌어 주고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끌고 나가자고 했죠?

그래서 대강 핵심적인 얘기를 했죠? 원래 기독교 부활은 3-4월달 쯤이죠. 우리는 2월 18일! 항상 해마다 정해놓았어요. 우리는 부활을 알아서 잘 치르고 있는데 기성은 아직도 계속 부활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성목사님들이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가서 좀 깨우쳐 줘라.

부활의 역사는 그때마다 계속 옵니다. 전반전 세계, 후반전 세계. 큰 시대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1999년도 시대의 환난의 십자가를 질때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개인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고,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사건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요? 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안하시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항상 맞춰서 가야 맞춰지죠. 이제는 항상 부활된 여러분들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신나게 하죠. 여러분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지만 다시금 새롭게 부활되어서 역사를 펴 나가자구. 신앙은 죽었다 살았다. 신앙은 하면 살고, 안하면 죽고. 그러니 다시 산 자의 부활을 가지라구.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위치에서 맞고 좋아하고 해야 됩니다.

죽어 있으니까 얼굴이 늙어있고 죽어있고 그러니 10년도 20년도 젊어지고. 여러분도 시대 부활을 맞고 심령이 살아나서 새시대를 맞자구. 모두 부활된 몸으로 새생명을 맞고 기쁨으로 하자구.

말씀이 계속해서 죽~ 나오니까 교역자들 준비해서 외치자구. 주일에도 또 말씀 줄게요.

살아있는 백부장을 통해서 살 듯이, 아버지를 통해서 귀신마귀 나가듯이,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부활되고 있다는 것 몰라요? 자기 어려움에서 살아 나오면 부활된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다시는 죽지 말고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하자구.

우리 섭리사는 요즘에 계속 말씀줘서 부활시켜 놓았어. 선생님도 뭔가 살아난거 같애.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외출타듯이 암벽을 타듯이 갈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것만이 역사를 이루고 기쁨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도 부활되고, 소원을 이루는 부활, 꿈을 이루는 부활도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천년역사 부활은 신부들만 하지. 흐리멍덩 하면 안돼요. 그러면 역시 청춘을 잠들며 아깝게 가는 것입니다. 한참 뛰고 달려야 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해. 뜻을 이루는 신앙, 정신, 마음이 살아야 해. 그래야 물질, 명예, 자기 소원한 것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흐리멍덩하면 안돼요. 카리스마, 영웅적인 사상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럭저럭 믿으려고 해요. 불같은 마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보라구. 15살 때 먹은 마음을 계속해서 오잖아요.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다고. 70일을 굶었어도 밥먹는데 신경을 안썼다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왔어요. 따르는 자들이 문제였지, 내가 언제 문제였어? 다니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어? 엘리야가 문제 있었어? 따르는 자들이 항상 문제였어. 나는 이제 신이 되어서 행할테니 화면으로 보는 시대가 왔으니 열심히 뛰고 달리라구. 언제 코로나 풀리나, 언제 축구하지? 그거 생각하지말고 먼저 완전히 살아나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이 살아서 행하니까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20일동안 운동장 한번도 안갔어요. 약수터도 20일 넘도록 한번도 안갔어요. 한번은 내가 손님이 와서, 의원 한분이 와서 약수 떠주고 기도해줬어요. 아픈사람. 80세 노인이 와서 기도해줬어요.

나는 기도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불이났어. 힘이 났어. 여러분도 월명동 한번 왔다오면 신나겠다, 이랑골? 일하는 곳이 이랑골이에요. 이제는 오직 자기 생활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조은이가 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환경과 처지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경제적 소망도 이루게 하십니다. 힘내서 짹 하자구! 선생님 나오셨을 때 와~~한 것처럼 자기 위치에서 해요.

결혼했는데 신랑이 건강하니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런데 신부들이 병들었어. 모두 말씀 듣고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소망이루면서 열심히 하자구. 내가 한번에 다 부활시켜 버리겠다고 했죠? 부활되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밥이 머여? 잠이 머여? 정신상태가 썩었다니까. 전

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나부터도 여러분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보고 싹 돌린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도 이제는 3년 7년 10년동안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한다구. 기도하겠어요.

부활했다! 한번 외쳐봐요. 부활했으니 헛눈 팔지말고, 감히 하나님을 성령님을 나를 어떻게 보고. 웃기게 보고 투덜대고 있어? 어제도 20년만에 누구 전화했더니 안 죽었다고. 악평들어도 속으로 계속 믿고 있다가 45세였는데 지금 65세가 되었어요. 신나게 믿고 달리자구. 아멘하고 뛰고 달려요!